



긴급진단 | '심석희 사태'로 본 학교스포츠와 성폭력

합숙훈련·제왕적 위계질서 여자선수들 성폭력 무방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가 상습적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추가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체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무엇보다 대한체육회가 8일 2010년과 비교해 폭력(51.6%)과 성폭력(26.6%)이 각각 25.5%포인트, 23.9%포인트 줄어든다는 '2018년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6시간여 만에 공개된 사건이라 그만큼 충격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도 9일 "그간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지도자가 선수 미래 좌우...각종 요구 거부 못해
해외 전훈팬 특히 위험...‘몸쓸짓’ 드러나도 쉬쉬
지도자 도덕불감증·스파르타식 훈련도 큰 문제
전문가 “학교스포츠 틀 다시 짜는 계기로 삼아야”

●과거 사례도 있는데, 왜 반복될까



조재범 전 코치

2007년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박명수 전 우리은행 감독은 전지훈련지인 미국 LA에서 선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권위를 악용해 약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시 선수들은 박 전 감독과 직접 연봉협상을 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였고, 선수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직장갑질’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체육계에선 여러 차례 성폭력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집행유예와 영구제명이라는 과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조 전 코치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심석희 측 법무법인 세준은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 노출될 수밖에 없나

냉정히 말해 여자선수들은 늘 성폭행 및 추행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종목에 관계없이 합숙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 문화의 특성상, 상사의 지시를 거스르긴 쉽지 않다. 특히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면, 선수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더 올라간다. 경기 출전 여부는 진학, 취업, 연봉 등과 직결된다. 선수 기용은 지도자의 고유 권한이다.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도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선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에서(성)폭행 또는 추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미래가 걸려있다 보니 피해를 입고도 쉽게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구조다. 동료들이 힘을 모아 돕지 않는다면, ‘내부 고발자’로 찍혀 모든 상처를 혼자 뒤집어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운동에 인생을 바친 선수들의 절실함을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사진)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를 '상습적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문화·예술계에 이어 체육계마저 성범죄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음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 계산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스포츠동아 DB

'멀티맨' 이청용·황희찬이 기대되는 이유 ▶3면



이청용

황희찬

"친절한 아베형" 두산 박세혁 신바람 훈련 ▶4면



박세혁

아베 신바람

포스팅? FA?...나성범 ML 진출 딜레마 ▶6면



나성범

감독·MC로...스타들이 교양에는 간 까닭은 ▶13면



문근영



신통정형외과의원

비수술 · 척추/관절/통증

목·허리
디스크

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통증치료



NAVER 검색창에 신통정형외과 입력

미아역1번출구 수유시장 건너편
예약문의 ☎02)984-7575

통증치료클리닉 개설

- | 척추 | 관절 |
|------------------|----------------|
| ① 도수치료 | ① 프롤로(인대증식)치료 |
| ② 신경차단술 | ② FIMS(핀스치료) |
| ③ 꼬리뼈 신경성형술 | ③ ESWT(체외 충격파) |
| ④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 | ④ 레이저치료 |